

열반, 공극의 행복을 찾아서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7월 1일~8월 24일

열반은 단순히 '지금 이 삶의 끝'이 죽음이나 더 높은 나를 위한 '완전한 행복'에 있음을 의미한다. 육신을 벗고 '공극의 행복'을 찾아가는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은 '열반과 사리신앙'을 주제로 2014년 특별전 '열반, 공극의 행복' 전이 7월 1~8월 24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난문화재로 삼성문화재단에서 회수해온 현등사 사리 △사리진 1500년 전 사리의 비발'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호) △'인간이 만든 가장 신비한 주문' 무구정광다라니경 진본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6호) △우리나라 최초 불상복장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제사리호(국보 제233호)를 비롯해 국보 4건, 보물 17건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 171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현등사 사리는 2005년 불교계 환수 이후 일반인들에게 최초 공개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현등사 사리는 1991년 당시 삼성의 호암박물관 소장국립중앙박물관 도록에 소개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도난 유물임이 밝혀져 소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불교계가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2005년 여론에 힘입어 불교계에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러 불교중앙박물관은 "사리는 성물로 여겨 합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따라서 전시 오픈일인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운식을 봉행한 후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 열반의 의미 △사리를 담은 그릇, 사리장엄구 △불상과 불화에 모셔진 사리 △사리신앙의 다양



현등사 사리 장엄구

'열반과 사리신앙' 주제로

171건 문화재 한자리에

현등사 사리 이운식도

한 변화 △스님의 열반, 승사리장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사리장엄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사리장엄구는 미감과 안정성을 고려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신앙의 결정체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불교급속공예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유리, 금, 은, 동과 같은 용기들을 여러 겹 겹쳐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식이다. 이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부처님의 보관(寶棺)이 금, 은, 동, 철의 4중관이었다고 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법 스님은 "불교에서 부처님 열반은 무척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교미술 초기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 열반의 의미와 그 모습들을 되새기고, 이후 사리신앙의 성행으로 이어진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3003 나한도에 대중의 행복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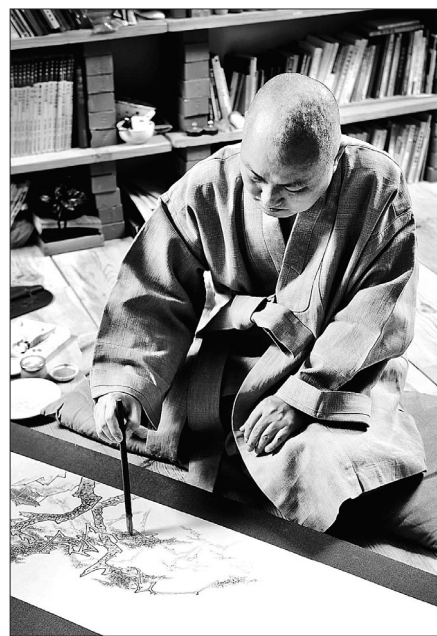
적산 스님 대아라한전 인사 갤러리 미술세계서

"다양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북한산 노적사 계곡 옆 소나무 아래서 수행정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극락세계 도출된 김복에 이르러 아라한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깨어나니 이미 제 손에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친견한 수많은 아라한을 모두 화폭에 담기까지는 무아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반복하며 10년이 필요했습니다."

적산 스님의 작가 노트 중에서 삼천삼 아라한을 선보이는 적산 스님의 '3003위 대 아라한' 전이 7월 16일~29일 인사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에서 열린다. 1999년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전시로 스님은 중생교화에 힘쓴 '시선존자', 지옥고의 중생을 구제한 '근계존자' 등 3003 아라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스님은 10년전, 북한산 노적사 계곡 옆 소나무 아래서 수행정진 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본 아라한을 그림에 담았다고. "1999년에 10년 동안 작업한 첫 전시를 잘 마쳤지만 제가 진정 그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선에 들어갔는데 수행 도중에 아라한의 세계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하는 아라한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원을 세웠습니다."

서예와 산수풍경을 그려왔던 스님은 전통 회화 기법의 선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인물화를 그려냈다. 수많은 경계를 만났지만 그림을 그리며 이를 극복해 냈고 10년 만에 3003 아라한을 그림으로 완성할 수



적산 스님은 지난 10년간 고양시 토골에서 작업에 매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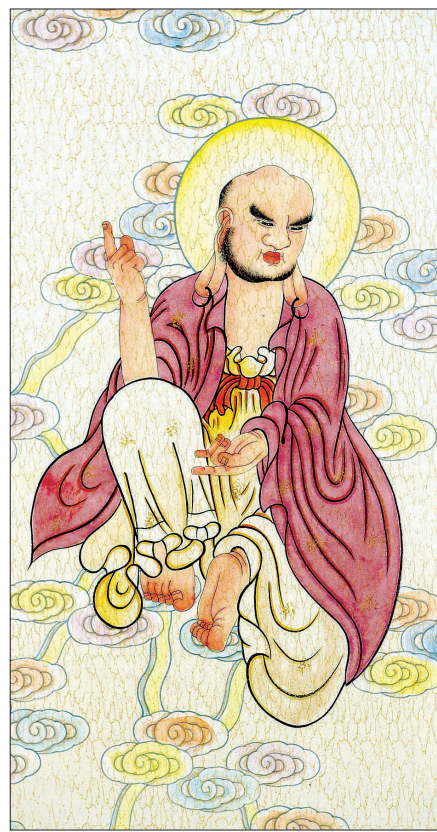
전통 회화 기법 10년 수행 결정체

다양한 표정의 아라한 완성

7월 16일~29일

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정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 작업에 임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장애가 오니까요. 지난해에는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작업에 매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었죠.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그림을 포기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3003점의 그림을 완성해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되어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10여 년 고행 끝에 탄생한 아라한 연작은 오랜 수행의 과정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아



지옥고의 중생을 구제하는 '근계존자'



중생 교화에 힘쓰는 '시선존자'

라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수행 끝에 얻어지는 불교적 세계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시대 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의 구원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물인 삼천 아라한을 통해 이 땅의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심의 힘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각기 다른 외모를 하고 있는 3003 아라한의 모습 속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에 분명하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순간 순간을 아라한의 표정 하나하나에 담아낸

그림 속에는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스님의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토골에서 꾸준히 작업해 온 스님은 앞으로 불교 포교에 매진하는 저술 활동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10년의 작업을 마친 지금은 무념무상의 상태인 거 같습니다. 어떤 욕망도 번뇌도 머물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마무리 정진을 위해 마음공부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대중서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02)2278-838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경기북부음악예술제... 7월 5일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가 7월 5일 오후 5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연기되었다가 이번 7월 5일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식전공연으로 청원사 안정불교대 영산재와 고양 신관류예술단의 아카펠라 '원더풀' 등이 무대에 오른다. 1부 법요식에 이어 제2부 행복나눔 음악예술제(연한할창단공연)에서는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원효대사 일대기'가 연주된다. (031)969-0108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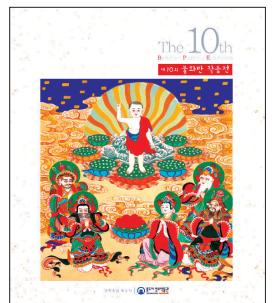
지난해 경기북부음악예술제 공연 장면

10회 맞은 통도사 불화반 전시

영산회상도 등 수강생 작품 전시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회장 신윤희)이 7월 2일~27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10회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경희의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38명 수강생의 후불탱화, 탄생도, 백의관음, 42수 관음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신중탱, 팔금강, 동진보살, 칠성탱, 독성, 산신, 용왕, 비천, 쌍용, 6곡 연단 등이 선보인다.

또한 정원 스님의 '석가모니불', 불화강사 조해종의 '영산회상도' 오기웅의 '수월관음도' 이승규의 '지장탱화 석가모니불' 권영수의 '석가모니불(홍탱)' 문경옥의 석가삼존도가 전시된다.



불화반 수업은 매주 수요일 연구반, 목요일 기초반이 진행되며 강사 조해종(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부국대 불교미술학과 강사)선생의 지도로 수업이 진행된다. (055)384-0020

정혜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은 '열반과 사리신앙'을 주제로 2014년 특별전 '열반, 공극의 행복' 전을 7월 1~8월 24일 연다. 사진은 왕흥사지 사리기

무료배송
66%



에pson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전시상품 절대 아님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리뷰에서 철성상회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주문은 **현불십!**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29,8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giban**

나만의 완성세계 **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giban**

성물들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giban**

giban 완성 신장국 명반 인정만 내외국인 인정됩니다